

“교회, 종교단체 소멸 꿈꾸는 공산 좌익세력 막아낼 수 있다”



▲ 제2차 월간 독립정신 바로세움 포럼.

“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국가 해체, 종교단체 소멸을 주장해온 공산주의 세력이 사용하는 용어혼란전술을 답습한 좌익세력에 의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내년 1월 창간 예정인 월간 독립정신을 기념해, 지난 21일 부산 바른청년연합센터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역사정신바로세움포럼 등의 주관으로 열린 월간 독립정신 바로세움 포럼에서 안정웅 자유의숲 대표가 이같이 주장했다.

안정웅 대표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 혼란전술에 대한 주제 발표

를 통해 “지식인들이 나서서 좌익세력의 정치 용어 왜곡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이승만 대통령이 1923년 미국 하와이에 서 발간된 잡지 태평양의 기고문 ‘공산당의 당부당(웅고그름)’을 주제로 채택,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그동안 공산주의자들의 통일전선 전략으로 인해 문화, 언론, 정치 등 각 계각층이 좌경화되었다.”며 “우리는 그동안 실패한 공산

주의에서 졸업하는 것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재평가와 민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무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이승만은 기고문 ‘공산당의 당부당’에서 공산주의의 위험성과 미래를 예견할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기술자 양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공을 세우는 등 선지자적 업적을 세웠다.”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이승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지탱할 체제로서 부적절함을 미리 간파해 그의 통찰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낳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원대한 꿈과 통찰력으로 조국의 미래를 논하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원성웅 목사 (옥토교회)

“교회를 지키려면 성경말씀을 따르는 보수주의자가 돼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방역 당국의 강력한 모임 제재로 인해 한번 느슨해진 신앙생활을 다시 복원할 힘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예배에 대해 명령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정부는 교회에 방역을 협조해달라고만 말해야 한다는 예배지침을 제시, 주목을 받은 목회

자가 있었다. 덕분에 많은 비난과 조롱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던 원성웅 목사(옥토교회)를 만나, 못 다한 이야기와 그의 신앙 세계 속으로 들어가본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3)

진정한 사랑의 관계... 자유 의지를 드려 순종할 때 이뤄져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그 의지로 선택할 대상이 없다면 자유 의지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아마도 인간의 사랑에서의 자유 의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만약 선택할 대상이 없다면, 사랑을 선택할 의지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랴? 하나님은 사람 앞에 특별한 나무 두 종류를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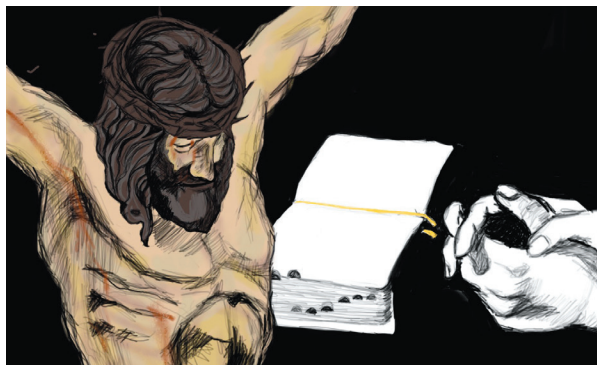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 있었다”(창세기 2:9, KLB) 그중 하나는 생명 나무였다. 사람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계속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생명 나무의 선택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나무에는 ‘먹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간단한 명령을 주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사람은 결과를 책임지게 된다. 그 결과는 명확한 것이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명령을 어기면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그루가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되도록 구별해 주고 있다. 사람은 창조될 때 선택의 자유 의지를 부여 받았다. 선택이란 무엇을 먹거나 혹은 먹지 않거나, 즉 순종하거나 혹은 순종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명령을 들으면 ‘무조건 지키는 대로 따르도록만’ 되어 있는 로봇이 아니었다. 로봇과 같은 종속의 지는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



일러스트=김경선

만 기꺼이 따르는’ 자유 의지와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자유 의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른다. 순종은 그 관계를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만든다.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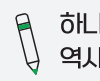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모로코 이민텔라... 강진으로 주민 대부분 사망



▲ 모로코 강진으로 무너진 암즈미스(Amizmiz). 제공: 황은실

최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3000명 가까이 숨지고 5000명 넘게 다쳤다. 진앙지와 가까운 암즈미스 지역, 아틀라스 산맥 산간 마을이 지진으로 무너

져 내리면서 이민텔라(ImiN'Tala) 마을을 덮쳐 마을 주민 대부분이 사망했다. 이곳 인근 지역 마을은 빵과 다른 음식물이 전달되어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밤에 추위를 견디기 위한 텐트

와 담요, 두꺼운 옷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마을 건물이 대부분 무너지거나 균열이 생겨 마을 주민 모두가 가까운 공터에 모여 함께 지내며 버티고 있다. 아프리카이지만 모로코 남서부에 위치한 아틀라스 산맥은 겨울에는 눈이 올만큼 추운 곳이다. 이곳은 아직 정부나 구호단체의 도움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긴급구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진의 피해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모로코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족을 잃고 통곡하며 도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있는 주민들에게 곤핍한 자를 위해 은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흠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시 68:8~10) [GPNEWS]

가자지구 유일한 개신교회, 전쟁 한복판서 믿음의 걸음 이어가

가자지구의 유일한 개신교 목회자가 지금도 전쟁의 한복판에서 성도들과 예배드리며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격려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에 따르면, 한나 마사드(Hanna Massad) 목사는 하마스의 공격이 있던 다음 날인 10월 8일, 온라인 화상으로 가자 침례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날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을 위한 90분 기도회뿐 아니라 순교자 라미 아야드(Rami Ayyad)를 위한 연례 추모 시간도 가졌다. 가자 침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라미 아야드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서점의 관리자로 일하다가 2007년 10월 7일, 이슬람 무장세력의 처형으로 살해되어 순교했다. 마사드 목사는 “만일 우리가 원함과 증오심에 지배당한다면 하나님 사역을 하는 효과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신다.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사드 목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기독교인과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 기독교인이 이 시기에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방에서 오는 적대감에 포위당해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세 개의 불 사이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이슬람 무장세력이라는 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불이고, 나머지 하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및 전통적인 교회(가자지구 그리스 정교회와 가톨릭)라는 불이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들이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불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원함과 증오심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 가자 침례교회 정문. 제공: 한국VOM

한다.”고 말했다.

마사드 목사는 “인터넷 화상 모임을 통해 상담사인 친구와 트라우마 상담 모임을 가졌는데,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교인 일부는 화상 모임에 접속하지 못했다. 성도들은 정신 건강을 많이 걱정한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웨스트 뱅크 교회에 참석하는 100가정 외에도 요르단에 살고 있는 이라크 난민 700가정이 항상 격려해 준다면 “하나님의 가족을 보는 것은 우리가 더 큰 몸의 일부라는 사실,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주님께서 형제자매를 우리 삶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공감을 통해 격려받는다.”고 고백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아칸소 주, ‘반여성적 용어’ 금지... 남녀 생물학적 차이 인정

미 아칸소 주지사가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며 ‘반여성적’ 단어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19일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주지사는 “정부는 여성을 무시하고, 약화하고, 지워버리는 언어를 거부해야 한다. 출생의 기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주 정부 기관들에 ‘임신한 사람’ 대신 ‘임신한 엄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주님, 미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日, 공공부담 장례 5만 건 넘어... 유족 無·경제 형편 이유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망자의 ‘장제(葬祭)부조’ 대상자가 작년에 5만여 명을 넘었다고 아사히신문을 인용, 연합뉴스가 최근 전했다. 장제부조는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장제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병원 등 제3자의 신청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시신 운반, 화장, 납골 등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도(2022.4~2023.3) ‘장제부조’ 건수는 5만 2561건(잠정치)으로 전년(4만 8789건)보다 3772건이 늘고, 1956년 집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돌아보는 이 없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본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로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관세청, 9월까지 493kg 마약류 적발... 작년보다 29% 증가

관세청이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국경 반입단계에서 493kg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지난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1~9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493kg으로 작년 같은 시기(383kg)보다 29% 늘었다. 한편 적발 건수는 501건으로 11% 줄면서 1건당 적발 중량은 984g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246kg), 대마(120kg), 케타민(31kg), 합성대마(23kg),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18kg)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육신의 쾌락을 쫓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모든 간계를 파하여 주소서.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 얻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회복하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11월 6일 ~ 2023년 11월 25일

11월 6일 ~ 11월 11일 11.6~10(00~24시) ▶인천 예양 / 열린문교회(김**)010-7336-7535, 11.6(05~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1.6~11(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11.6~8(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11.8,10(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1.9(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그 외 10교회 진행중.

11월 13일 ~ 11월 19일 ▶경기 광주 / 문광교회(최**)010-3380-5781, 11.14,16~18(20~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1.16(18시)~11.17(18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11.16(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11.17(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17(15~20시), 11.19(15~17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그 외 9교회 진행중.

11월 20일 ~ 11월 25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1.20~24(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11.2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1.22~24(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010-7423-4953, 11.23(18시)~25(18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이**)010-3684-6673, 그 외 11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이스라엘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가자지구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전쟁의 원인과 진행 상황, 향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편집자>

이스라엘-가자지구 국경에서 벌어지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친(親)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하마스가 억압적인 이스라엘 정권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역사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간의 역학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 이론의 관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사실일까? “압제자”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투쟁에 대한 ‘권리’

비판 이론은 모든 것을 사회학, 즉 사회와 경제에 기반을 둔다고 믿었던 칼 마르크스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다.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경제학적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다수에 속한 사람은 소수를 억압함으로써 그 지점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는 앞서 가던 압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넘어섰다는 뜻이고, 만약 누군가 이미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랐다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갔다는 뜻이다. 따라서 억압받는 사람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억압하는 사람에 대해 투쟁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탈식민화에 대한 요구

이러한 움직임은 탈식민화라는 점점 더 대중적인 요구로 이어진다. 친(親)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이



▲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후 계속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TIMES NOW 캡처

지역이 과거 팔레스타인과 아랍인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탈식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탈식민화는 하마스의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탈식민화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역사의 어느 시점을 첫 번째 식민지로 정의할 것인가?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탈식민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 여호수아 시대 이전의 가나안 사람들로 탈식민화할까? 어느 시점에서 탈식민화를 중단해야 할까?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내릴까?

이러한 사고는 ‘내 진리 외에는 진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다. 세상은 종종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더 많이) ‘당신은 당신의 신념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내 신념을 강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反)유대주의의 바탕이 되어 왔다. 객관적 진실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포기는 대학 캠퍼스와 일부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콧, 투자 철회, 제

재 활동의 배후에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비교해 규모가 작은 하마스가 잘못이 없다고 믿도

록 너무 많은 사람을 속여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듯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완전한 악, 그 자체’이다.

하마스, 결코 이스라엘과 평화 원하지 않는다

하마스는 결코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1988년에 발표된 하마스의 첫 번째 헌장에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것이며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슬람 저항 운동(Harakat al-Muqawama al-Islamiya)의 약어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저항하기 위해, 보다 종교적 기반을 둔 전투조직으로 설립되었다. 하마스의 종교적 이념에 따르면, 세계는 이슬람의 영토인 다르 알 이슬람(Dar al-Islam)과 전쟁의 영토인 다르 알 하브(Dar al-Harb)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는 이슬람화 된 나라와 땅을 의미한다. 후자는 아직 이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말한다.

하마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무어인(중세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던 무슬림) 정복 이후 스페인처럼 한때 무슬림의 지배 하에 있다가 자유로워진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처와 반복되는 조롱과 모욕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사악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면 얼마나 더 모욕적이겠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 하마스는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출처: 유튜브 채널 The Times and The Sunday Times 영상 캡처

을 몰아내야 한다.” 하마스의 헌장 제12조에는 “적이 무슬림의 땅을 밟아야 할 때만큼 민족주의가 중요하거나 깊은 것은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마스 헌장의 원본은 이슬람 전통(하디스)을 인용한 것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싸우고 그들을 죽일 때까지 심판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위와 나무 뒤에 숨을 것이고, 바위와 나무는 ‘오, 이슬람교도여, 내 뒤에 유대인이 숨어 있으니 와서 그를 죽여라.’라고 외칠 것이다.”라고 돼 있다. 개정 헌장에는 “무장 저항은 계속되어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점령에 저항하는 것은 신성한 법과 국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차이점

이스라엘의 전쟁은 도덕적으로 동등한 전쟁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은 “하마스가 오늘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고, 우리가 오늘 무기를 내려놓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전쟁 당사자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전혀 잘못이 없지도 않았고, 완벽하지도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정계의 많은 사람은 자신들의 경력과 지위를 높이거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적개심을 이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압제자이고 팔레스타인은 압제를 받는 자라는 식의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억지스러우며 비논리적이다. <데니스 포럼> [GPNEWS]



▲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NBC News 캡처

규범 및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다. 그 중심에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원칙과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여겨지는 무장 저항이 있다.”고 돼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급진적인 개종이 필요하다. 또한 이스라엘의 4대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가 말한 것처럼 “아랍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의 자녀를 더 사랑할 때 평화가 올 것”이다. [GPNEWS]

마이클 브라운 박사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신앙개혁을 소망하는 원성웅 목사 (옥토교회)

● 1면에 이어

-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남도 산청의 불교와 유교, 샤머니즘을 믿었고, 할머니는 절에도 다니고 집에서 고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사를 통해 서울에 와서, 아펜젤러가 만든 배재중학교에서 꿈을 키우면서 기독교학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신학대에 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법대에 가서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12월 예비고사를 치른 후 회심하는 경험을 갖게 됐습니다.”

-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먼저는 배재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채플 통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것도 배경이 됐습니다. 아펜젤러가 학교를 세우고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로 내려가다가 해난 사고로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이분은 수영을 잘했는데, 조난 사고에서 일행 두 사람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살아 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아펜젤러의 이런 모습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또 애국심과 신앙심으로 고등학생 때, 농번기에 전기도 안들어오는 농촌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억제하고 ‘법대에 가서 고시를 패스하고 정치를 하자. 남자로서 그런 야망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예비고사가 끝나고 회심을 했어요. 내가 갈 길은 무엇일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하기로 결단하게 됐죠. 이후 신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온 가족이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또 구약학 교수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삶 통해 영향

- 교회는 어떻게 개혁하시게 됐나요?

“공군 군목으로 복역한 이후 3년간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어요. 이후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셔서 개혁을 하게 됐습니다. 1987년도에 개혁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저와 아내 모두 믿음의 1세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초소를 얻어서 교인 1명으로 옥토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코로나 때,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요?

“코로나 사태가 비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점점 일방적이고 무리한 조치를 내리더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면서, 20명 미만의 영상 촬영팀만이 예배당 안에 있도록 했어요. 예배당 좌석수가 만 석이 넘는 초대형 교회이든, 십여 명이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이든지 예배인원은 오직 19명까지만 허용됐어요. 게다가 공무원으로 사찰단을 꾸리고 그 숫자가 넘는 교회를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고, 예배당 폐쇄 공고를 붙였어요. 또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끊이지 않았어요.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확인했죠. 이런 조치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유난히 개신 교회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편파적이었어요. 교회들은 처음에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였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의 집회도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일부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길거리에 나서서 전도지 대신 마스크를 나눠주며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기까지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협조하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나 당국자들은 한국교회의 협조와 순응을 교회의 ‘복종’인 줄 알고 교회를 ‘동네북’처럼 때리고 비난하며, 코로나 사태 악화를 교회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언사를 서슴없이 했어요. 나는 당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연회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로 부터 “이럴 때 예배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하는가?”라는 걱정스런 질문을 받아왔어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기미를 보일 때, 심사숙고 끝에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는 예배지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의 예배지침 발표

- 예배지침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배할 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라 명령하실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방역 당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신앙과 믿음에 대해 명령을 내릴 위



▲ 목사 안수 40년 감사 때 찍은 사진. 제공: 원성웅 목사

치에 있지 않고, 다만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만 말해야 한다. 그러니 정부 당국자들은 교회를 ‘문제 집단’ 정도로 경시하는 어투로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권한 밖의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지요.”

당시 발표된 예배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연회는 1) 2020년 9월 20일 주일부터 서울연회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것이며, 이때부터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개교회가 홀로 떠맡지 않고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며 대처할 것이다. 2)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잠시 그 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고, 방역을 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된다. 3)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가 오더라도 감리교단이 법적으로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4) 각 교회들이 신중하고 지혜롭게 화중 예배를 드리되,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전염병의 방역을 위해 띄워 앉기와 마스크 쓰기, 열 체크와 손 씻기 등의 모든 준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분만 자택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란다.

- 당시로서는 강력한 내용이군요.

“감독 서신이 발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악의적인 욕설과 비방 문자와 글들이 포털사이트에 셀 수 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감독 서신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말 잘했다며 용기를 북돋우는 글과 전화, 문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쇄도했습니다. 또 기독교언론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취재하고 설교를 녹화 편집해서 전국에 배포하면서 향간에 들끓은 오해들을 잠식시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회의 예배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예배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교단 대표들에게 협의의 하위수위조절을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교회 예배에 대한 제재가 다 풀렸습니다.”

또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구약 박사학위를 받은 후 신학교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와 목회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사명도 받았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선교국 위원장을 섬기면서 선교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러 반(反)성경적 악법들이 발의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악법에 대응하기 위해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쿼터행사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과제 통합 국민대회’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했죠. 서울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도 섬겼습니다.”

- 신앙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군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보적 입장에 서면 교회가 약해지고 공산,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말씀에 순종하는 보수적 입장에 서야겠다는 결론이 났던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인권에 대해 상세하게 만들어진 게 구약 모세오경의 법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자유, 해방, 노예 해방에 대해 나왔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말씀하시며 휴식과 쉼을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나 동물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노예 매매법이라는 악법을 유럽에서 금지시켰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노예들이 자유 시민이 됐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흑인이나 황인, 백인이 손잡고 같이 사는 세상을 주장하면서 흑인 인권이 회복됐죠.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보측에서 주장하는 인권은 성경과 반대됩니다. 그 뿌리가 막시즘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레위기나 바울서신, 창세기 등 성경적 바탕에서 보면 동성애를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왜 아름답다고 하고, 왜 인권이라고 포장할까요? 그들은 무신론에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 68혁명 사상에서 비롯된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사상의 문제이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악마의 흐름이라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GPNEWS]

C.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캄보디아와 인도 선교를 후원하는 음악축제. 제공: 원성웅 목사



선교 통신

티벳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 일상화... 중보기도 절실해

티벳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게다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그 믿음을 지속하는 일은 더 쉽지 않다.

루오룽(가명)은 농사 일을 하면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형편은 좋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헛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우상을 모셨던 방들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러다 집이 넓아 수리가 필요하던 때에, 마침 마을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루오룽에게 예수님을 믿으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라며 비웃고 그를 멀리했다.

즈마(가명) 자매는 도시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들,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낸 즈마는 졸업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즈마가 유일했고, 가정과 마을의 일상은 티벳교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즈마는 고향에서 사는 것이 싫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면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리워지곤 했다. 점차 복음을 듣고 경험했던 감격들도 사그라졌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그 먼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른 아침 즈마는 부모님과 함께 사원의 불상 앞에서 예불을 드렸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이곳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사역자 찌시(가명)는 함께했던 동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면서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다. 일을 할 기회의 문도 점점 좁아져 갔다. 이곳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다. 두려움이 더해져 더욱 낙심했다. 아버지는 이 땅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것인지 묻지만 그분을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소망보다는 절망이 점점 더

가득해진다.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배척과 핍박,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티벳교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개인이 홀로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 압박, 보안 문제, 열매 없는 사역, 영적 세력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 등은 사역자들의 믿음을 갇아 먹는다. 이 모든 장애물은 티벳 사람들과 사역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지극한 사랑,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절망이 믿음의 자리를 빼앗는다. 예수님께서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마 6:23)”라고 말씀하셨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과 소망과 예



▲ 사원의 불상 앞에서 절하는 티벳 사람들. © 복음기도신문

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날마다 알게 하옵소서.”(엡 1:17~23) 아멘. [GPNEWS] KS(한국WEC국제선교회)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일본 맥도날드의 전통 가족 광고, 미국 광고와 대비... 문화전쟁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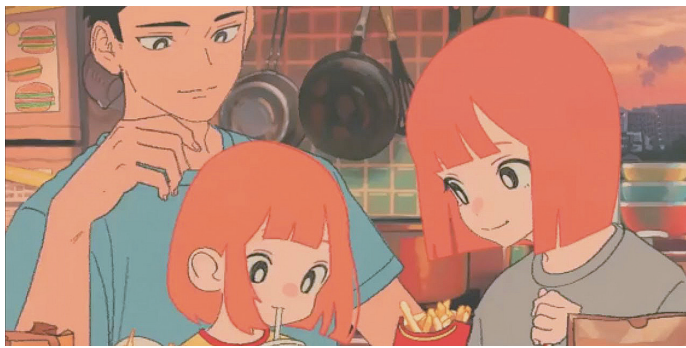
일본 맥도날드가 만든 광고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이 애니메이션 광고가 미국 맥도날드 회사의 ‘성소수자 권리 연설’ 광고와 대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일본의 전통 가족 광고를 공유하면서 칭찬했고, 이에 미국의 동성애자, 성전환자들은 일본의 맥도날드 광고를 비난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미국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약자와 소수가 선할 거라는 선입관을 없애야 합니다.” “이젠 일반적인 가정을 보고 뭐라 하는 시대라니... 어이가 없네.” “저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정신병이라는 증거”

사람들은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갖고 있다. 그런 판단을 왜곡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며, 인권조례와 국가인권위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다. 또 차별금지법에는 그런 속내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와 표현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그래서 동성애·성전환자를 위한

다는 차별금지법은 다수 국민의 기본적 인권(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불평등법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한국인들이 일본 광고를 보고 반응하는 것은 ‘좋은 모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교육심리학은 사람들이 본 것을 배우고 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전통 가족의 좋은 모습을 보면 그것을 선호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과 아이를 자주 보게 하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게 된다. 한국의 방송에서 좋은 가정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끔찍한 지옥 같은 가정을 보여주는지, 귀여운 아이를 보여주는지, 악마 같은 아이를 보여주는지 비교하면 언론사들이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지 알 수 있다.

한국에 종교인이 50%인데, 사람들이 꼽는 행복 1순위는 천국이나 해탈이 아니라 ‘돈’이더라고 지적하는 글이 있다. 미국인들이 일본 광고에 반응한 것은 복음주의자들은 전통 가족의 가치에 대해 신앙적 믿음을 갖고 투쟁하는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교회가 그러한 성경적 가치를 보여주는지, 아니면 세상



▲ 일본 맥도날드 광고의 한 장면. 출처: 유튜브 채널 Captain Oblivious 캡처

의 가치에 압도되거나 종속되어 그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부분이다. 사실, 성경의 남녀관, 가정관이면 현대 남성들은 교회를 적극 지지하게 된다. 기독교에 부정적인 젊은 남성들도 ‘여성들의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로마시대 귀족들이 정숙한 기독교 집안 여성을 원했던 이유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도 공교육과 언론, 인터넷을 통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동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세속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의견도 있다. 교회들이 ‘개교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과 국가와 민족을 잃어가고, 결국 다음세대의 기독교인 비율이 3~4%라는 미개척지로 만들어 버

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또한 불교계는 20년 전부터 기독교의 다음세대를 끌기 위해서 미션스쿨과 교회와 일반인이 접촉되는 경로를 ‘종교편향’이라며 끊는 작업을 해왔다. 교회는 ‘내 교회’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무감각하게 먹혀온 것이다. 아픔을 못 느끼는 한센병이라고 해야 하나.

자녀 임신을 알았을 때의 순간을 알리는 영상, 자녀들을 키우는 재미를 보여주는 영상 채널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저혼인, 저출산, 남녀갈등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한다. [GPNEWS]

〈S.Y〉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교회가 잠잘 때 지옥은 불탄다

네로 황제가 빈둥거릴 때 로마가 불탔는지 어땠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지옥이 불타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마 13:25)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 신학적 논쟁에 열을 올리는 동안 매일매일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지옥에는 낮이 없다. 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영원한 밤이요 끝나지 않는 고통의 밤이다. 지금 영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불같은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잠을 줄여서 기도할수록 지옥에서 잠을 못 자며 영원을 보내야 할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G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8)

오직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이다.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었다. ‘오직 믿음’이었다. 그의 생애는 믿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그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다.

성경은 구약의 결론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서 결론을 선포하고 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그 위대한 선언을 선포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좋은 믿음, 괜찮은 믿음, 열심히

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절대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오직 믿음을 계시해 주신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혼돈하지 않도록 계시해 주셨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어야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오직, 절대, 전부’가 실제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롬 4:1~3)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모든 근거는 그의 행위나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철저히 오직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가 믿었던 믿음은 하나



일러스트=이예원

님이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었을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롬

4:17~22)

그것은 오직 믿음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이 말한 창조의 주님이요 전능의 주님이요 영원한 주님으로 아주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이다. 아멘.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익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Jakin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 복음기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순회선교단 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드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출시

00-01시

1.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2.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3.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4.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5.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6.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7.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8.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9.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10.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제목

6종으로 구성된 드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드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동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비상한 때, 비상한 응답

김용익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드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거부하고 싶었던 부르심의 길... 그러나 순종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출 23:25)

2023년 새해를 시작하던 첫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웬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느낌에 한 해를 살아갈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에는 부담되는 말씀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며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에 갖게 되는 생각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였다. 앞서 가신 선배들에 비하면 이제 막 시작한 길일 수 있지만,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다. 해외 선교지에 장기간 있을 때에도, 국내에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의 나에게 묻고 계셨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니?”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한 해 동안 계속될 질문이 내 마음에 박히게 되었다.

첫 선교지인 태국에서 올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사인 나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삶이 사역이 되고, 표본이 되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일러스트=고은선

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그리스도인이자 선교사인 나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삶이 사역이 되고, 표본이 되고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그 고민은 계속되었다. 실제로 몸이 아프기도 했고, 사역지와 다음 걸음을 위한 고민이 갈수록 더해갔다.

어디에 있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지 알아야 했기에 더 어려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문은 더욱 나를 고민하고 간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을 보여주셨다. 한 기독교학교에서 교육 선교사로 인도해주셨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나의 길은 아니라고 확신했다. 교육에는 뜻이 없고, 성향과 맞지도 않고, 스케줄도 따라가기 어렵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는 해외 선

교사로서 장기적인 헌신의 사역지를 구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보여주신 길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저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에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이유와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었다. 나는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헛갈리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런 나를 일깨우시고 다시 붙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마 동안, 무엇을, 얼마나... 내 안에도 다른 이들로부터도 이러한 질문이 있지만, 나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허락된 것에 충성하고 이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나의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 [GPNEWS]

최이레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10. 3 ~ 10. 24 (가나다 순)

개인

김남철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형숙 박경희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이보희 이삼연 이영옥 이은주 이장원 임화연 장근혜 정옥영 정요한 정호진 조복형 최근희 최영석 최점옥 홍고집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웹주만교회 주소망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북한 부흥을 위하여

탈북민 단체, 쌀·USB 담은 ‘페트병’ 서해에서 북으로 보내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대북 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탈북민 단체, 사단법인 ‘큰샘’과 ‘노체인’은 최근 서해에서 쌀과 USB를 담은 페트병 200개를 북한으로 흘려보냈다고 지난 1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USB에는 성경, 가요, 드라마, 언론 보도 내용 등을 포함해 외부 세계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이 활동을 멈추면 북한의 누군가는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활동이 재개됐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그동안 대북 쌀 보내기 활동을 비

공개로 진행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6일,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최근 활동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앞

서 대북전단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자제의 입장을 유지해 왔던 한국 통일부는 지난 5일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PNEWS]

北 사회안전성, 마약 제조·판매 일당 10여 명 체포

북한 사회안전성이 마약을 불법적으로 제조해 판매해온 일당 10여 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체포했다고 데일리NK가 지난 20일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다년간 마약을 생산·판매해온 마약업자 10여 명이 이달 초 전국적으로 동시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붙잡힌 10여 명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원료를 보장하는 조, 함경북도 청진·라선에서 제조하는 조, 각 도에 판매하는 조 등 조직적으로 범행해왔다. 또한 소식통은 중국과의 마약 거래가 북한에서 보다 약 2~3배는 더 돈을 번다면

서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멈췄다가 올해 다시 왕성하게 밀수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져 더 문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뒤를 봐준 당, 안전부, 보위부, 군 간부들까지 간부들의 체포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함경북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지켜온 국가의 존립 자체를 건드리려고 내부에서 마약을 생산해 유통하거나 사용하는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게 해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對)주민 선전이 벌

어지고 있어 함경북도 전체가 한동안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GPNEWS]



▲ 북한으로 보낼 쌀과 USB를 담은 페트병. 출처: 유튜브 채널 사단법인큰샘 캡처



▲ 필로폰. 출처: Unsplash의 Loren Biser



2023 기도24·365
완주감사예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2023.11.23.(목) 오후6:30

서부교회 마포대로 197, 5호선 애오개역 1번 출구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4

식사 신청

11/18(토)까지 010-387-24365로 문자신청
(예시 : 김기도 / 외 2명(총3명) / 010-0000-0000)
당일 식사시간은 오후 5~6시 입니다

문의 기도24·365본부 010-387-24365

